

### ‘수검표’에 담긴 의미

**기고**  
**구자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몇 번의 흔들림과 격렬한 공방을 치르며 이제 투표, 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여러 선거 이슈와 어젠다로 서로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했다. 우리 선관위는 차분하고 내실 있게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번 총선부터 가장 달라진 점은 수검표 절차의 도입이다. 분류기운영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투입하기 전,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한 장씩 확인하는 서사를 쓰게 됐다.

수검표 절차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다. 먼저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수

검표 절차는 선관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공표하는 시그널이다. 선관위는 불신, 정치권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 분위기를 수검표라는 장치로 통합과 공감의 정서적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전 한 유튜브가 전국 40여곳의 (사전)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다. 그 자체가 사회제도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상징으로 읽힌다. 이러한 개인의 일탈은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는 등 투·개표소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불법카메라로 상징되는 이러한 불신 풍조는 사람간의 연대를 더욱 단절시키고, 사회시스템 작동기제의 규범을 훼손시킨다. 불신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거친 현실 속에서 자

신이 가진 고통, 분노, 갈등, 불안, 두려움의 감정으로 점철된 ‘아픔의 자화상’이다.

우리 조직도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등으로 여러 질책과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직원들은 모두 고통과 아픔으로 심연의 바다에 침잠했다. 우리는 지난 아픔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더욱 가열찬 자기검열도 실시했다. 우리 조직의 고통과 아픔은 ‘아픔의 자화상’을 가진 이들과도 역설적으로 연결된다. 갈등과 대립,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수검표’라는 고통의 산물을 내놓으며 그들도 소중한 한 명의 유권자라는 사회통합과 공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회제, 선관위를 불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검표’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신뢰성을 ‘이런저런 장치들’을 보임으로써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불신’을 잠깐 내려놓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라고 손 내밀고 싶다.

### 광주시교육감의 눈과 귀를 막는 교육청 직원

#### 독자투고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인간에게는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독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이며 행동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힘을 기르고 태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건 슬로건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인 만큼 아이들의 리터러시 역량과 독서습관 형성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나는 지역 대학 학부에서 ‘독서지도론’과 ‘독서지도실습’, 정책대학원에서 ‘독서문화연구’를 강의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학생과 지역의 독서 발전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독서와 도서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과 함께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을 만나 독서 발전을 위해 논의도 하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4월 4일(목)에 먼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만났다. 전라남도교육감은 제안자의 의견에 경청을 해 주었으며 교육청

직원은 현시점에서 추진할 할 수 있는 내용과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 번의 만남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나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한국의 독서와 도서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과 함께 이경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만나고자 연락하였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팀 직원에게 제안할 내용을 말하였더니 담당과에서 해결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경선 교육감을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똑같은 사안을 접하는 두 교육청의 차이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원들이 외부의 조언과 비판없이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히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외부의 조언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직원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독서교육이 잘 수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언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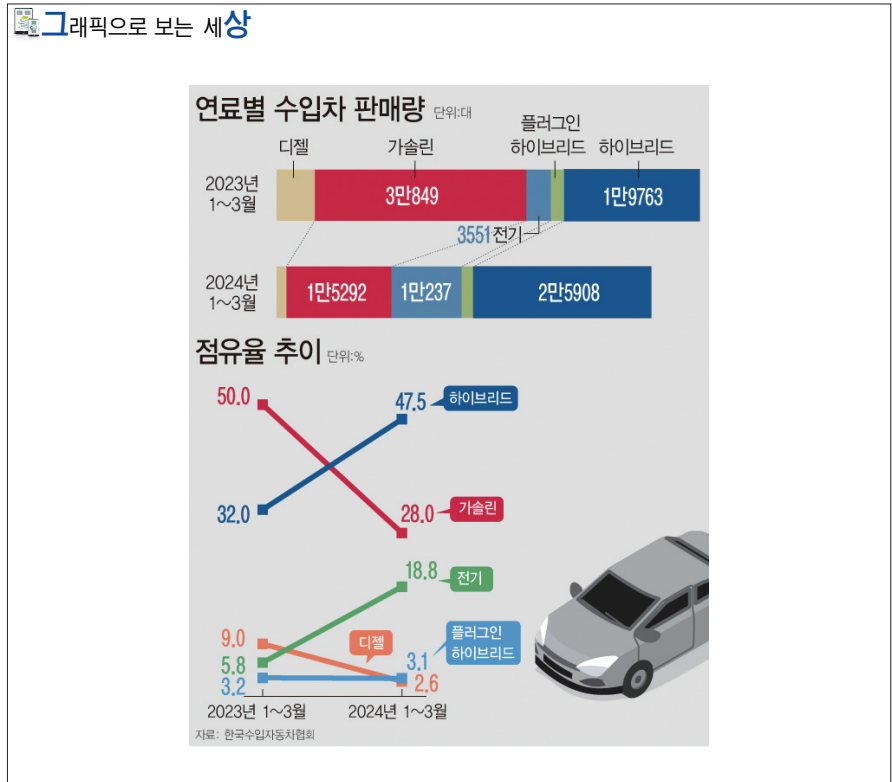


### ‘도시농업의 날’을 아시나요?

지난 주말 10평 남짓한 주말농장 만들기 했다. 2주전에 넉넉하게 넣어 준 퇴비를 갈아엎고 이랑과 두둑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심을지 고민해서 나름대로 구역을 나누었다. 소규모 텃밭이다 보니 밭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업을 했다. 도시에 살면서 주말농장을 수년째 하고 있는 자칭 도시농부인 필자에게 있어 한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른바 도시농업이

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으로 여기 활용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한 행복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도시민들의 정서적인 여유마저 빼앗아 갔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빠른 변화에 지친 도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다. 실제로 봄이 되니 주말농장 텃밭 분양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 내 손으로 직접 가꾼 농작물을 가족들에게 먹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까닭이다. 마침 4월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도시농업의 날’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매년 4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4월이 도시민들의 농사체험 의욕이 증만해지는 달이고 11일은 흙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숫자 11을 한자로 나타내면十一(열 일)과一(한 일)이며, 이 두 글자를 합치면土(흙 토)가 된다는 뜻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봄을 맞이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말농장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옥상이나 베란다, 상자 텃밭 가꾸기도 좋다. 신체의 건강은 물론 자연과의 동화를 통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 매월 500만원

# 임새산삼 직영농장 1동 통(330m<sup>2</sup>) 분양

법인으로 계약하고 매월 500만원 배당금은 대표님 통장으로 ...

근저당설정 or 금융권 지급보증서

### 가평 농장 24동중 1동 통분양은 5명 한정(나머지는 일반 분양)

(주)임새산삼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직영농장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1구좌 1동 풀구좌 3억으로 월 500만원씩 연 6,000만원 확정수익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당사 생산제품들을 매월 무료로 제공합니다. 원금도 철저히 보장되며,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금용사에서 원금보장 지급보증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100% 원금이 보장되며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1989년 - 우리농산 설립(경기도 남양주시)
- 2006년 - 지리산 산삼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07년 - 산삼 영농조합 산하 전국 24개 직영 농장 확대
- 2009년 - 한국 관광 평가 연구원 BEST BRAND 기업 인증
- 2012년 - 청와대 사랑채 산양산삼 전기회 우수상
- 2015년 - 산양삼 경옥고 특허 출원
- 2016년 - 임새삼 유기농 스마트 농업 개발 성공
- 2019년 - (주)임새삼 설립

◆ 면세점/골프장 등에 황제경옥고 대량 판매중(200만원)

재배현장 | 가평 제 2 농장 | 가평군 설악면 23,504m<sup>2</sup>

1구좌(33m<sup>2</sup>)는 삼천 만원에 매월 50만원

★ 투자금 3년후 반환 ★  
<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회사 지급보증서 발급 가능>

※ 본 농장은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을 모집합니다.

구분	투자금	확정수익금	당사 생산품 무료 제공	회원 기간
실버	3,000만원	매월50만원	황제경옥고 1Kg 연 4회 제공	3년
골드	9,000만원	매월150만원	황제경옥고 1Kg 연 12회 제공	3년
VVIP	3억원	매월500만원	황제경옥고 / 경옥수(水) / 골스틱 상시 무료 제공	3년

온라인에서 고천규 임새삼을 검색해 보세요! | 고천규임새산삼 | 검색

본사가 직접 농장 재배 및 유통까지 책임집니다!!

분양 문의 02-2268-3335 | 영남 및 호남 지사 모집중!